

# 문집은 지식의 창고이자 글쓰기의 고전

## 문집탐독

### 조운찬 지음

일반적으로 동양의 옛 문헌은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 분류한다. 경은 유교경전이고 사는 역사책이다. 자는 철학 사상서, 집은 문집을 일컫는다. 물론 문집은 시와 산문의 모음으로 본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책의 대부분은 문집이다. 물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역사서와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서 등 관찬 서적을 제외할 경우다.

이들 보면 우리나라는 '문헌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국시대부터 1천년 넘게 저술된 문집들이 무궁무진하다. 서지학자들은 현재 전해오는 문집이 4000~5000종에 달하며 전통 문헌의 70%이상을 차지한다고 본다.

지식의 창고이자 글쓰기의 고전인 우리 문집을 탐독한 책이 발간됐다. '옛글의 풍경에 취하다'의 저자이자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운찬 씨가 펴낸 '문집탐독'은 잊혀진 고전인 문집을 재발견하는데 초점을 뒀다.

역사에 비해 개인적인 기록이 많은 문집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독자의 감응을 거쳐 살아남은 문집은 그 자체로 가치가 남다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수십 년 이래로 괴이한 논의가 있어 우리 문학을 대단히 배척하고 있다. 선현의 문집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큰 병통이다. 사대부의 자제들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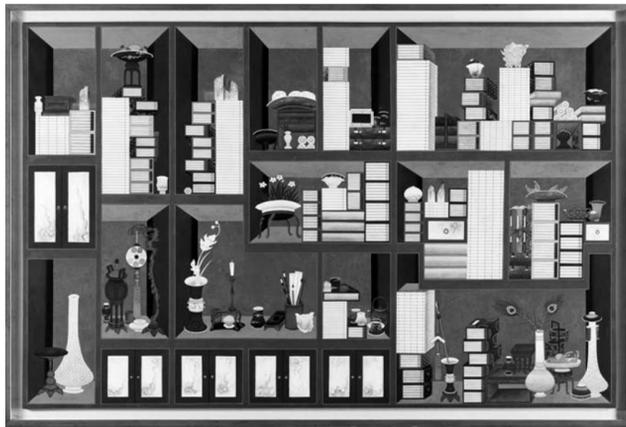
리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의 문집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의 학문이 고금을 꿰뚫었다 할지라도 거칠고 조잡한 것이다."

저자는 수천 종의 문집 가운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을 위주로 소개한다. 통일신라 시대의 '계원필경집'부터 일제강점기 나온 정인보의 '담원목록'에 이르기까지 30종을 추렸다.

1부는 '고품격 문장을 쓴 우리 문학사의 별들'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중국 대륙을 풍미한 고려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재현의 '약재집', 시의 마귀가 따라다니니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을 비롯해 모두가 인정하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 박지원의 '연암집'이 등장한다. 또한 조선 한문학 천 년의 대미를 장식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인보의 '담원목록', 문학의, 문학에 의한, 문학을 위한 글쓰기를 지향했던 정유외의 '계곡집'도 들어 있다.

2부는 '끝내 세상을 바꾸어낸 치열한 연구자들'을 소개한다. 선비의 본분은 독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이이의 '율곡집', 쓰고 또 쓰고 정통 관인학자의 기록문학 이의현의 '도곡집',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반성하라는 역설했던 문인 이항복의 '백사집' 등이 나온다.

새로운 생각의 가능성을 열어준 안내자들에 대한 문집도 있다. 3부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이들의



우리나라는 '문헌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천 종의 문헌이 전해온다. 사진은 박수학 작 '책가도'.

문집이 중심이다. 조선의 책벌레이자 마이너의 상징 허균의 '성소부부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탐색자 홍대용의 '담헌서', 아름다움에 가려진 치열한 학문의 세계를 지향했던 문인 김정희의 '완당전집'이 그것이다.

4부는 부조리한 세상에 당당히 저항한 문장가들이 등장한다.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킨 사육신의 충절 박팽년의 '육선생유고', 부조리한 세상에 저항하는 방외인의 방랑 김시습의 '매월당집', 허례허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합리적 생각의 실천가 양득중의 '덕촌집'에는 옛 문인들의 기개와 정신이 깃들여 있다.

격변기를 살아간 인재들의 숨겨진 문집 수 있다. 마지막은 혼란 속에서 살아간 문

장가들의 삶을 다룬다. 조선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의 '삼봉집', 죽음으로써 뜻을 알린 순절한 독립운동가 황현의 '매천집', 민족혼을 일깨운 중국 한류의 개척자 김택영의 '소호당집'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문집 읽기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옛 사람의 명문장을 만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옛 사람들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들었다고 덧붙인다. '춘추좌전'에 나오는 '삼불후(三不朽)'가 그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최고요, 좋은 글을 남기는 것이 다음이요, 업적을 남기는 게 그 다음이다." <역사공간·1만65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지 못할 길 탐색 ... 익숙한 것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 길 잃기 안내서

#### 리베카 솔닛 지음 · 김명남 옮김

화제의 신조어 '만스플레인'(mansplain, man+explain)의 발단이 된 글이 실린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의 저자 리베카 솔닛은 뛰어난 에세이스트로 꼽힌다.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인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길 잃기 안내서-더 멀리 나아가려는 당신을 위한 지도'를 '자신을 잃는 일, 그럼으로써 익숙한 것 반



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날마다 풍경이 담긴 글이다.

작가 스스로 "내 글은 걸지 않았던 곳으로 걸어가는 노력의 이야기, 가지 못할 길을 탐색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듯, 그녀의 글들은 방랑, 탐색, 모험 같은 주제를 다뤘다.

이번 책은 작가로서 리베카 솔닛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자신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교외와 도시라는 풍경을 탐색하고 이민자 출신인 자기 가족의 할머니들

과 고모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서부 사막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젊은 시절 예술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을 함께 길러온 친구들과 과의 이야기도 덧붙인다.

'열린문', '데이지 회화', '두개의 화살촉', '방치', '단종집', '먼곳의 푸름' 등 8편의 에세이가 실린 책에서는 할머니들, 정복자와 원주민, 핑크와 블루스, 사막, 도시의 폐허 등 리베카 솔닛을 만든 이야기와 장소들을 만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 책에 대해 '사적 회고록, 철학적 사색, 자연에 대한 전래의 지식, 문화사, 그리고 예술비평이 결합된 흥미로운 글'이라 평했다. <반바·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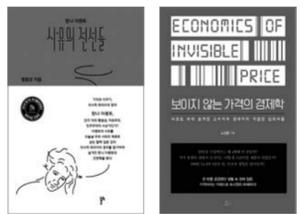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한나아렌트 사유의 전선들-알려지지 않았던 한나 아렌트의 진면목을 만나. 아렌트는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는 안온한 철학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 사유가 가지는 함의가 그것뿐일까?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지은이는 기억과 이야기, 다소 낯설 수 있는 '파리아'(Pariah)의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나 아렌트 텍스트와 현실의 접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번째테제·1만8000원>

▲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가격이 어떤 상품에 담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수입맥주는 왜 4캔에 1만원일까', '저가항공은 어떻게 일반행 티켓을 1만원대에 내놓았을까', '쿠팡은 언제 손해를 보며 물건을 팔까'와 같은 질문을 풀어내면서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메커니즘을 밝힌다. <책들의정원·1만5000원>

▲상속의 역사-백승중 교수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



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사우·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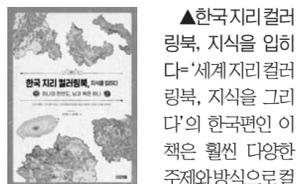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1= '난처한 미술이야기'의 클래식 음악편으로 첫 번째 책은 '모차르트, 영원을 위한 호소'라는 부제를 달았다. 지은이는 클래식음악은 인류 문화유산, 즉 고전이기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독자들이 음악을 찾아 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QR코드도 음악을 연결했다. 감각적인 50장의 일러스트, 50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사회평론·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로이네 집-미국을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엄선해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 미술에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구 집에 놀러간 어린이의 시선으로 책을 구성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일상의 친숙한 사물들을 주제로 삼은 많은 작품을 남겼다. 책을 읽으며 색채를 느끼고, 일상의 사물들을 익히고, 개수를 세다 보면 팝 아티스트의 세련된 색채 감각까지 익힐 수 있다. <북·1만2000원>



▲미미의 스웨터-웃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충동구매를 왜 지양해야 하는지, 버려진 옷은 어디로 가는지 등의 류 산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종합적으로 녹여냈다. 명화를 재해석해 작품에 활용한 점에서 지은이의 인문학적 감성이 잘 드러난다. 쇠라의 대표작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당시 독특한 옷차림과 맞물려 무겁고 불편한 옷에 대해 경각심을 준다. 앙리 마티스의 '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유행을 따르려다 기능을 상실해 버린 세태를 돌아보게 한다. <논장·1만3000원>



▲한국지리컬러링북, 지식을 읽히다- '세계지리컬러링북, 지식을 그리다'의 한국판인 이 책은 훨씬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컬러링을 선보인다. 또 우리나라를 세세하고도 입체적으로 조명하도록 구성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 한국의 4극, 시대별 한국의 영토 변화 과정,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주제별로 구성된 18개의 컬러링은 물론 13개의 지형도, 7개의 내부구조도, 22개의 행정 구역,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 컬러링 20개 등 풍성한 철학 거리들을 수록해 알차게 구성했다. <사계절·1만7500원>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